

2021
10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면허신고

02 KAMT NEWS

03 6개 시도회 보수교육 공지

06 KAMT NEWS

감염관리 지침서 제정 박차

10 SPECIAL

규제과학전문가

12 NEW BOOK

가장 믿을 수 있는 수혈 (輸血) 필드 매뉴얼

제465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Shaping the future of healthcare, Siemens Healthineers
-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 LG화학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진단검사 역량의 변혁, 환자케어의 향상 한국백크만쿨터주식회사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주)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Be Happy in Life with 봄메디칼
- 응고검사의 믿음직한 길라잡이. 스타고
- 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시스맥스코리아(주)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자 최재석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의료기사 "면허신고·보수교육" 안내

'14년 까지 면허자 일괄신고/15년~신규면허자 만 3년째 최초신고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필수 요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과 관련 개정사항 등을 새로 담아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2021년도 면허신고 등 업무지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소개하면서 전체 회원들에게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취지로 도입된 의료기사면허 신고제가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법적근거** :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택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택과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업무 위탁** : 법 28조(권한 위임 또는 위탁)에 의거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의 신고 수리, 교육에 대한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에,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함

▶면허신고

가. 면허신고 대상 : 모든 의료기사가 대상으로 면허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대상.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기사법 21조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 부터 3년마다,

2014년 12.31 이전 면허 취득자는 일괄신고를 실시하며, 2015년 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인 2018.1.1.~12.31까지 최초 신고

면허 취소자가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면허 재발급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다.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간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라. 신고방법 및 절차

의료기사는 소속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실택 등 신고서' 작성

[신고요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 해당자는 중앙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중앙회장(협회장)에게 제출, 중앙회장은 신고요건 충족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의료기사 협회는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인 국시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해 신고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이수자 및 유예·면제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면허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면허(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면허(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법 22조3항),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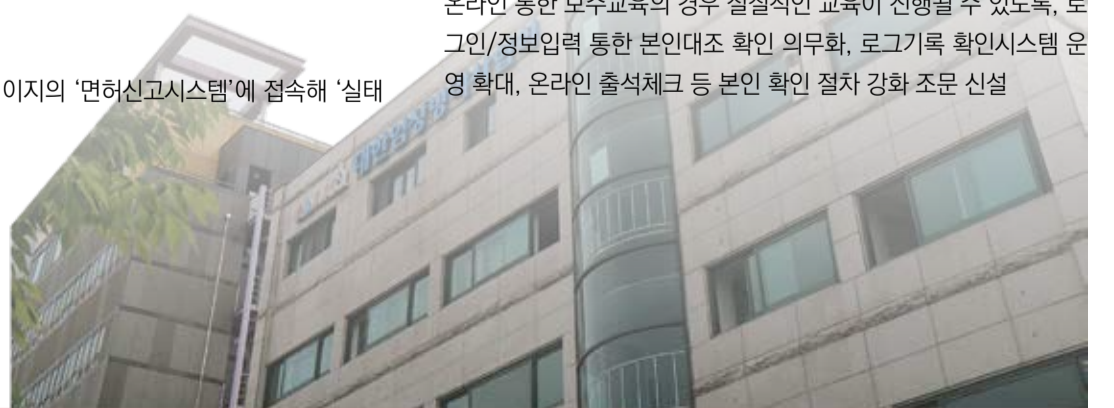
▶면허(자격) 신고업무 행정사항

면허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신고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취업상황 등 신고서(별지 서식)" 내용을 면허(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면허신고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11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고요건(보수교육 이수 등) 미충족으로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수리 거부 못함

*2020년도 면허신고·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 면허에 대한 전공심화과정(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위한 과정) 재학생 포함(2021년부터 적용)

온라인 통한 보수교육의 경우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로그인/정보입력 통한 본인대조 확인 의무화, 로그기록 확인시스템 운영 확대, 온라인 출석체크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조문 신설



인천시회 2021년 1차 웹세미나 보수교육+

일시 2021년 10월 23일(토) 14:00 - 19:00

장소 웹세미나 보수교육(www.kamt.or.kr)

프로그램

1. 임상병리사의 환자안전관리- 이난희
2. 검사실 심사준비를 위한 검사실 운영- 김승용
3. 분자병리학의 실제- 최연일
4. 반복 신경자극검사의 이해- 김정미
5. 아동폭력예방교육- 오현숙
(해당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기간 2021년 9월23일(목) ~ 10월 15일(금) 23:59까지

부산시회 2021년 1차 웹세미나 보수교육+

일시 2021년 10월 30일(토) 13:30 - 18:30

장소 웹세미나(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웹페이지 참조)

프로그램

1.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
2. 장비 정도관리 실무
3. 참고치 범위 설정과 검증
4. 상대가치제도
(해당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기간 2021년 09월 30일(금) ~ 2021년 10월 25일(월)

서울시회 2021년 2차 웹세미나 보수교육+

일시 2021년 10월 30일(토) 15:00 - 19:30

장소 웹세미나 보수교육(www.kamt.or.kr)

프로그램

1. 미생물검사실 안전 관리- 정태원
2. 검사실 안전관리- 홍성철
3. 알기쉬운 말라리아- 박수배
4. 반복 신경자극검사의 이해- 김정미
5. 아동폭력예방교육- 오현숙
(해당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기간 2021년 09월 30일(금) ~ 2021년 10월 25일(월)

경남도회 2021년 1차 웹세미나 보수교육+

일시 2021년 10월 30일(토) 13:00 - 18:00

장소 웹세미나 보수교육(www.kamt.or.kr)

프로그램

1. 검사실 직원의 감염예방- 강혜숙
2. 신장질환의 이해- 이승모
3. 알기쉬운 말라리아- 박수배
4. 수술중 신경계 감시의 이해- 오세근
5. 조직병리의 이해- 김기성
6. 아동폭력예방교육- 오현숙
(해당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기간 2021년 09월 30일(금) ~ 2021년 10월 25일(월)

강원도회 2021년 1차 웹세미나 보수교육+

일시 2021년 10월 31일(일) 13:00 - 18:00

장소 웹세미나 보수교육(www.kamt.or.kr)

프로그램

1. 공단검진 청구- 박미숙
2. 갑상선호르몬의 이해- 김선희
3. 검사실 심사준비를 위한 검사실 운영- 김승용
4. 육안검사의 이해- 이현아
5. 검사실 직원의 감염예방- 강혜숙
6. 아동폭력예방교육- 오현숙
(해당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기간 추후 대한임상병리사협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제주도회 2021년 1차 웹세미나 보수교육+

일시 2021년 10월 30일(토) 14:00 - 19:00

장소 웹세미나 보수교육(www.kamt.or.kr)

프로그램

1. 임상병리사의 환자안전관리- 이난희
2. 검사실 직원의 감염예방- 강혜숙
3. 세포병리의 이해- 이주영
4. 차이나는 평가클래스 기초 - 평가입문 이해하기- 류주남
5. 정도관리 현재와 미래- 이해순
6. 아동폭력예방교육- 오현숙
(해당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기간 2021년 09월 30일(금) ~ 2021년 10월 25일(월)

보수교육 공통사항

※ 교육당일 이수시간 기준평점 *교육이수시간 :59분 이하 0시간(0평점)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시간(1평점)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2시간(2평점)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3시간(3평점) :4시간 초과 4시간(4평점)

교육비 4시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72,500원

등록방법 대한임상병리사협회로그인 >보수교육 > 보수교육 > [각시도회] 2021년 웹세미나 보수교육 신청하기 > 교육신청 > 결제하기

대한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정관 운영규정 의결 10일 이사회, 총22인 이사 선임 내달 운영위 열어 실행 플랫폼 구축 나서기로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은 9월 10일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평가원 정관과 인증규정 등을 담은 운영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장인호 임평원 이사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선 당연직 이사(이사장 김충환 원장, 황석연 단장)와 협회 임원중에서 위촉된 임명직 이사, 그리고 교수 협의회장 및 국시위원장 등 총 22인을 이사로 임명했다.

정관에 따라 임평원은 운영 재심 판정 조정위 등 상임위원회와 비상임위로 기준개발 제도개선 교육 평가 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황석연 단장은 "평가원이 교수협의회의 주체가 되어 53개 3, 4년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게되는데 각 위원회 위원은 학교 교수 5인, 협회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는 3,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근속 10년 이상인자, 협회(중앙회)는 임상경력 15년 이상으로 책임 또는 수석기사 가운데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구성한다"며 평가의 생명인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담보를 염두에 두고 기준을 엄격히 했다고 설명했다.

임평원은 10월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 선임을 통해 각 위원회를 구성해 나감으로써 기본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검사실을 화학 바꾸다

지난 30여년간 LG화학은
국내 진단검사의학과의 검사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WeConnectScience

LG 화학



항상 고객 곁에 함께 하는

온라인 고객 지원

- Remote Calibration**
연 2회, 원격 캘리브레이션
- Remote A/S**
에러 발생 시, 간편하게 받는 원격 A/S

- Online Inspection**
연 4회, 온라인 정기 점검
- Online QC**
데이터 신뢰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 지원 신청 문의: 1833-5366

Fast, 빠르게
Fresh, 새롭게
Friendly, 가깝게

‘아시아(AAMLS) 넘어 세계로’ IFBLS 두 차례 유치 끝없는 ‘갈고 닦음’ 통한 사회적 위상·역할 제고 코로나19 방역 헌신 “임상병리사” 학술제전(2011-2020) 조명

정책 선도 및 부단한 전문 역량 제고,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세계속의 보건의료인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해나가는데 종합학술대회 개최 및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IFBLS) 유치의 참 목적이 있다.

마침 10월 16-17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주 제59회 종합학술대회에 이어 협회 역사상 뜻깊은 회갑을 맞는 내년에는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IFBLS(35차)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끊임없는 학문연마를 통한 자기계발에서 나아가 진단검사 임상발전에 대한 도전과 열정들로 점철된 협회 59년 역사 가운데 지난 20년간의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두 번째 조명 시간을 갖는다.

■ 2011~2020년 종합학술대회를 되돌아보며----[II]



21세기 밀레니엄 시대 서막부터 10년을 뒤로하고 2011년 제49회 종합학술대회는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임상병리사 역할’을 주제로 6월 24~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안용호) 주최, 대구시회 주관으로 열린 49회 대회엔 5,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터 122개, 학술초록 141개가 접수돼 내실을 잘 갖췄다.

일본임상위생검사기사학회 및 대만임상검사학회와의 교류회가 진행됐으며, ‘병리사의 사회인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생포럼도 병행했다.

이듬해인 2012년 뜻깊은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국민건강과 함께한 임상병리사 50년! 행복 미래를 향한 힘찬 100년!’을 주제로 6.29~30 코엑스에서 열렸다. 50주년 대회엔 학술교류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들의 친목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장기차량 시간인 ‘임상병리사의 밤’과 ‘50주년 UCC 공모전도 곁들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0주년 당시 중앙회는 16개 시도와 혈액, 수혈, 면역혈청, 임상화학, 미생물, 조직세포, 핵의학, 생리학, 공중보건, 임상검사정보 등 총 10개의 전문검사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했다.

당시 양만길 협회장은 “5만 회원의 전문인단체로 인정 받으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향후 50년은 국민 건강과 FTA 글로벌 관련 전문성 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단체로 도약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회 주관아래 ‘새로운 반세기 준비’를 슬로건으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1회 대회에선 전문성에 걸맞는 학술대회가 될 것과 국제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협회 위상을 높여나갈 것 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최, 경상남도 주관으로 2014년 5.30-31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2회 대회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40여명의 임상검사 분야 석학들이 참석하여 ISO 15189의 국제공인메디컬시험기관 등 국가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콜로퀴움이 진행돼 2017 AAMLS(아시아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학회에선 ‘국민과 함께하는 임상병리사’ 슬로건에 걸맞게 일반인을 위한 현혈 캠페인 및 혈액형 무료검사, 혈당검사, 체성분 검사, 폐기능 검사는 물론 지역 고교생 대상의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병리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알렸다.

‘임상병리사의 꿈과 행복’을 주제로 경기도회가 주최한 2015년 53회 대회(5.29~30 일산 킨텍스)에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각국 임상병리사의 활동영역 및 국내 임상병리사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엄 등이 눈길을 끌었다. 대회에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과정에서 유용한 ASCP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표출됐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회’를 표방한 2016년 54회 학회(전남도회 주관, 5.27~28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선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해 ‘검사실 안전’을 핵심 주제로 다양한 최신지견이 다뤄졌다. 정책심포지엄에선 ‘환자안전법’, ‘병원 재난대책에서의 검사실 역할’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학술대회에선 감염관리 기준 강화로 감염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을 보유한 임상병리사들이 필수인력에 포함돼야 할 것이란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55회 종합학술대회와 동시에 2017년 9월 22~2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7개국 6,000여명의 임상병리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회 아시아임상병리사연맹(AAMLS: Asia Association of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총회에선 양만길 회장이 아시아임상병리사연맹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KAMT가 아시아임상병리사연맹 사무국으로 선정됐다.

장인호 회장 취임 후 2018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상병리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대전시회 주관) 56회 학술대회는 검사 분야별 감염관리 정책과 가이드라인, 4차 산업혁명 특강, 신·변종 감염질환의 발현에 따른 임상병리사 검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의견 교류, 대한임상검사정보관리협회와의 공동 심포지엄 등으로 진행됐다.

‘하나된 임상병리사, 세계로’를 주제로 2019년 8월 30-31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57회 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8개국 임상병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임상검사정보관리학회 및 대한병리학회 등의 의사들이 상당수 참석해 감염관리 및 정도관리, 병리세포 검사 등에 대해 의사와 임상병리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학술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주목받았다.

특히 병리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병리세포 검사 등에 대해서 임상병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육안병리사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팬데믹 시대 대응 임상병리사 역할’을 테마로 한 2020년 58회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10월 9~10일 온라인으로 열려 △코로나19 검사·검체 채취 방법 △항상제 내성세균 관리 등의 강의를 들었다.

장인호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실험적으로 시도한 온라인 학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며 시대 흐름에 맞춰 전국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 및 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성공 다짐 2022 IFBLS SUWON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9월 4일 2022년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 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국내·국제 양대 학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윤희정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2022 IFBLS 발대식에서 장인호 협회장 겸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2006 IFBLS 개최에 이어 16년만에 35차 IFBLS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어 가슴벅차다”며 경함을 살리고 기원진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장 회장은 숙원인 회관 재건축 및 60년사 편찬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기원진 위원장은 5.17 IFBLS 조직위 1차 사전회의로부터 6월 IFBLS 관리위원회 Zoom Call(화상) 미팅을 통한 개최일 확정(2022.10.5.-9), 7월 조직위 부위원장·분과위원장 선임, 8월 PCO 선정,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홍보지원금 요청

등에 이르기까지 준비 경과를 설명하면서 ‘New Normal New Lab(시대변화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찾아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 슬로건으로 35차 IFBLS 학술대회의 출범식을 갖는 각오를 되새겼다. 기 위원장은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국 학술수준을 알리고 진정한 한류를 경험토록 하면서, 특히 60주년을 맞아 임상병리사들이 높아진 위상을 비로소 느끼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포부를 펼쳐보였다.

덴마크 대회 결과보고자리에서 송기선 국제이사는 35차 IFBLS 학술대회의 준비와 관련 주목받을 토픽(연제) 설정 및 훌륭한 연자 선정, 섭외를 위하여 IFBLS 뿐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하면서 홈페이지 개설을 앞당겨 사전홍보에 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상메시지를, 아리랑 TV 리포터와 기상캐스터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어 장인호 회장은 기원진 조직위원장과 김상원·김건한·김대중·김형락·유필상·강복만·이광우 조직위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운영 임대진, 재무 하성일, 섭외 엄동욱, 홍보 김철, 등록 권민석, 학술 이상희, 출판편집 이기중, 행사 황상노, 전시 지우현, 국제의전 송기선, 학생포럼 주세익)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발대식은 장인호 회장과 기원진 조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조직위원회 현판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1.09.01 ~ 09.30

- ▶ 09월 02일 제465차 상임이사회
- ▶ 09월 04일 2022년 제35회 IFBLS 조직위원회 출범식
- ▶ 09월 09일 감염관리위원회(Zoom 화상)
- ▶ 09월 10일 임평원 제1차 이사회
- ▶ 09월 11일 제170차 정기이사회
- ▶ 09월 14일 재무회계실무 역량강화 워크숍(Zoom 화상)
- ▶ 09월 17일 60년사 역사편찬위 실무회의
- ▶ 09월 24일 사무국 내부 중간검사
- ▶ 09월 25일 역사편찬위원회
- ▶ 09월 29일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정기회의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1.09.01 ~ 09.30

- ▶ 09월 02일 제465차 상임이사회
- ▶ 09월 03일 국회 정책간담회 참석
- ▶ 09월 04일 제35회 IFBLS 조직위원회 출범식
- ▶ 09월 10일 임평원 제1차 이사회
- ▶ 09월 11일 제170차 정기이사회
- ▶ 09월 16일 제9차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의 참석
- ▶ 09월 17일 60년사 역사편찬위 실무회의
- ▶ 09월 23일 제59회 종합학술대회 수상자 관련 회의
- ▶ 09월 24일 임평원-교수협의회 연석회의
- ▶ 09월 25일 60년사 역사편찬위원회
- ▶ 09월 29일 국시 문항개발검토위원회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밤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실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CHEMISTRY	DxC 8801, DxH 800, AU Series
IMMUNOASSAY	Dxl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감염안전관리 표준지침서' 내년1월 발간 감염관리, 검체채취·안전 등 부문별 원고 이달 마무리 손재철 위원장 '환자·병리사 안전, 감염관리 효율화' 일석이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위원회(위원장 손재철)가 감염안전관리 표준지침서 개발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 및 방문자 등 모든 고객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상병리사들의 안전에 기여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표를 두고 표준지침서 세부항목들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사항을 신설하는 막바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손재철 위원장은 "의료기관별로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 지침 또는 매뉴얼을 적용해 오면서도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체계적인 통합 교육도 미흡해 아쉬웠다"며 이 같은 현장의 애로 사항에 착안하여 감염안전관리 표준지침서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련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마련되는 감염관리 표준 지침서는 감염관리 교육에 유용하게 쓰여 질 전망이다.

임병협 감염관리위원회는 검체채취 등 지침서에 담을 각 주제별 파트를 구분, 원고를 1차 정리하여 10월 중 수정 작업을 거친 후 2022년 1월경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새 지침서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동시

에 책자로 발행하여 필요로 하는 감염관리 담당 임상병리사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감염관리 지침서 보완, 수정을 위해 꾸려진 감염팀(팀장 메리놀 병원 강혜숙, 간사 홍성의료원 최혜숙)은 △검체 채취 및 취급요령(신설: 고위험군 검체 수송) △유형검사 배양검사 △호흡기계 바이러스(인플루엔자, 메르스, 사스, COVID-19) △검체관리 및 분자역학적 방법 △고압증기 멸균 사용법(신설) 및 멸균확인 검사(CSR 등) △감시배양검사 및 환경 배양검사 △의료관련 감염예방 지침 중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 지침(신설) 등, 각 항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지침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서별 감시배양 부문에선 임상화학부의 수질검사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투석실 수질검사에서도 AAMI 최신기준에 맞게 지침을 수정하면서 투석액 배양결과 검토부분을 첨가했고, 고압증기 멸균기 사용법과 주의사항도 삽입했다. 검체 채취 취급 요령 항목에선 고위험군 감염검체 채취·수송에 필요한 국제표준화 규격 등을 새로 넣었으며,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지침을 CLSI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했다.

감염안전관리위 안전관리팀(팀장 정태원, 간사 나상희)도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신경과, 폐기능, 정책/자문, 인증기준으로 분담해 8월부터 10월까지 검사실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메리놀병원 사진 제공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선 출시 후 평가' 대상 포함 임용 교수, 임상병리사 RA(규제과학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취업 확대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성장율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가 관련 의료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가 확대되는데 그동안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 위해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에 한해 논문 등 문헌 평가 절차 이전이라도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평가유예 방식으로 시장 진입 문을 열어주면서도 이와 별개로 진단검사의학회 등에는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선(先) 시장진입과 별도 트랙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선진입 제도로 상당수 의료기기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체외진단기기는 예외조항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기업들의 반발을 샀는데 개정안을 통해 새로 유예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유예기간도 1년→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혁신 성장 국가 핵심 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 활약 분야로 체외진단기기 품질책임자를 꼽고 있는 동대대 임용 교수는 정부의 조치를 크게 반기면서 임상병리과 학생들 및 임상병리사들의 미래유망 직업군으로 발돋움 하도록 이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강화와 병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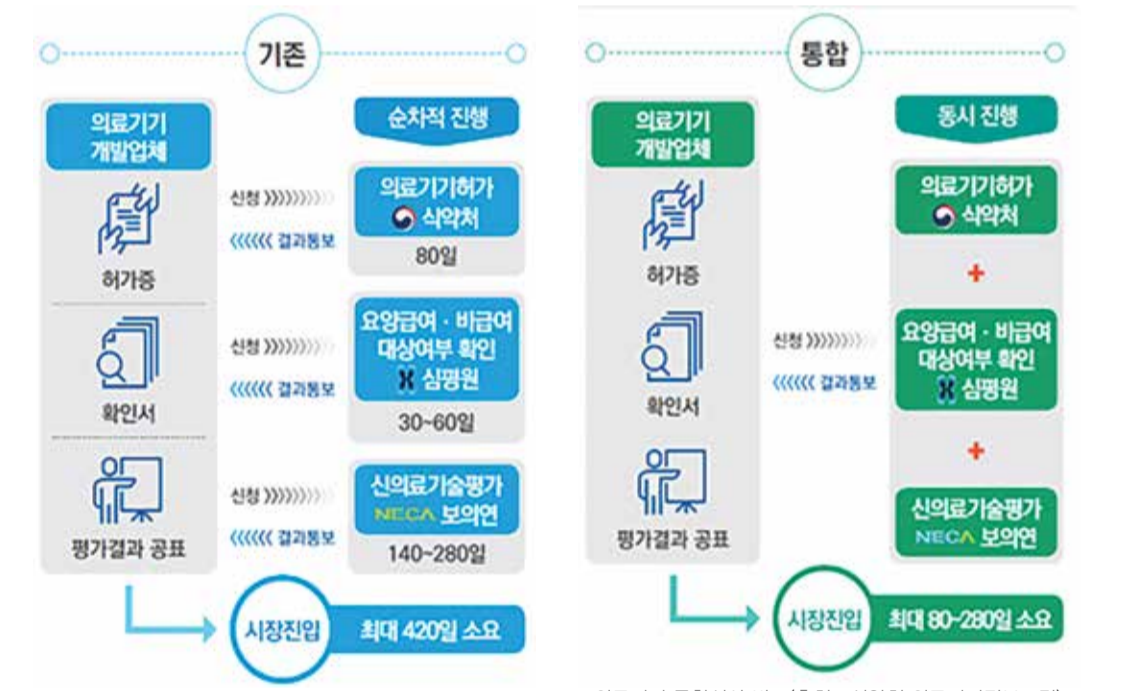
임 교수는 구체 방안으로 임상병리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의료기관에서의 핵심 직무 능력기 그간의 시약조제 관리에서 체외진단검사기기 등의 운영관리 능력 평가로 다변화(확대)되는 것에 부응한 입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의료분야 뉴 프런티어로 불릴 수 있는 'RA(Regulatory Affairs,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인력)'와 관련해서 임 교수는 체외진단 등 의료기기관리 운영평가 검사실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로 축적된 임상병리사의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서 의료기관에서의 이 같은 역할이 의료기기 제조사에 진출해서 그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핵심인력(RA)을 육성 할 수 있게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관련 기사 10면 임용 교수 기고문)

임 교수는 "의료현장 직무역량에서 체외진단 등 의료기기 관리 운영 평가를 통한 검사실 인증 사업에서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바로 '임상병리사'라면서 임상 현장 경험이란 초석 위에 교육과정 개편을 더하여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서 명실상부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중양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기·원격의료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에 막혀 국내 스타트업 '휴이노'가 심전도 측정 기능 탑재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놓고도 3년째 의료기기 허가를 못하는 사이 애플은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승인이 나 최초로 심전도 측정센서 장착 애플워치4를 2018년 9월 출시한 바 있어 선수를 빼앗겼다고 소개한 임 교수는 복지부의 선판배 후승인 조치가 만사지탄이 없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점사전 간섭 이슈처리 비용 60% 절감, VBDS를 아시나요?

VBDS 이란?
→ 오직 'Stago' 만 가지고 있는 응고법 측정 시스템입니다. Viscosity Based Detection System 의 약자로 점성도를 기반한 검사법이며, HIL 간섭영향을 최소화해서 검사전 간섭 이슈처리 비용을 최대 60% 감소하는 효과를 줍니다.

재채혈, 재검 비율 감소!
추가 검사비용 절감!
시간, 인력적 낭비 절감!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에스메디피아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http://www.ssmedipia.com>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13, 1층 Tel: 02-552-1951
 홈페이지: mail@ssmedipia.com Fax: 02-552-1972

중앙회소식

**역사편찬위원회,
25일 60년사 목차 구성 워크숍**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필상 부회장)는 9월 25일 워크숍을 갖고 협회 60년사 편찬을 위한 세부 목차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편찬위 워크숍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 지우현 간사, 김대중 위원, 구본경 위원, 김기정 임건일 섭외부장이 참여했다. 편찬위는 앞서 17일 실무회의를 갖고 목차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재무회계실무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2021년 재무회계실무 역량강화 워크숍이 9월 14일 하성일 재무이사가 주관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려 전국 16개 시도회와 11개 분과학회 재무회계 담당 이사 및 간사 등 37명이 참여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10.30(토)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11.13(토) NTM 심포지엄 등 추계학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회장 황유연)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삼경교육센터(웅산 동자동 센트럴프라자 6층)에서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임상검사 경력에 올 1월 기준 만 8년 이상으로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수련교육(44시간)을 수료한 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9월 30일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한편 임상미생물검사학회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돌파감염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원들의 강한 요청에 화답,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수련교육을 화상회의(Zoom)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월 13일(토) 개최되는 추계 분과 온라인 학술대회는 'Identification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에 대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회

**경운대 임상병리학과,
‘학술대회 성공기원 헌혈 릴레이’ 참여
지역 개최 59회 대회 학생포럼에도 적극 참가**

경운대학교(총장 한성욱) 임상병리학과(학과장 김해정)가 9월 14-15 이틀간 진행된 '제59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성공개최 기원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에 참여했다.

캠페인엔 김해정 학과장 및 교수,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의 사랑을 실천했다.

헌혈 릴레이 행사는 59회 학술대회가 경주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됨에 따라 경북도회가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해 준비했다.

경운대 임상병리학과 재학생들도 종합학술대회 학생포럼 부문에 참여, 다양한 학술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헌혈 릴레이에 적극 동참했다.



대한임상면역검사학회

**11.27(토) 코로나19 주제
온라인 추계학회**

대한임상면역검사학회(회장 임승택)는 11월 27일(토) 2021년 추계학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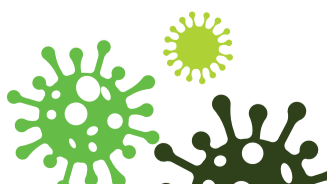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선 SARS-CoV2(COVID-19)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I에선 △SARS-CoV2 리얼타임 RT-PCR △SARS-CoV2 IgM, IgG △COVID-19 백신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심포지엄 II (구연)에선 SARS-CoV2 검사 기법 및 자유구연 연제가 발표된다. 임상면역학회는 10.27~11.22 사전등록과 함께 초록 및 포스터 접수를 받는다.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11.6 추계학회 보수교육
(순환호흡, 신경기타생리)**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회장 안영희) 2021년도 추계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이 11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보수교육은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부문(채널 2번)에서 'cardiomyopathy(분당서울대병원 정아름)' 등 6개 연제가 발표되며, 신경기타생리 부문(채널 1번)에선 'MEP 와 SSEP in the Intraoperative 신경생리학적 모니터링(삼성서울병원 장민환)' 등 7개 연제가 발표된다.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11.6(토) ‘인증심사 준비’ 주제 학술대회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회장 차경호)는 11월 6일(토) 오후 2시 "질 향상 및 임상화학 인증심사 준비의 실제"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연다. 학회에선 △검사실 업무 개선 사례(신촌세브란스 최운정) △Quality(Key) indicators(차경호 회장(서울성모)) △내부정도관리 종합적 검토(신촌세브란스 정은진) △동일검사의 서로 다른 방법, 2대 이상의 비교 평가(부천성모 조종보) △AMR의 validation 또는 verification(의정부성모 남현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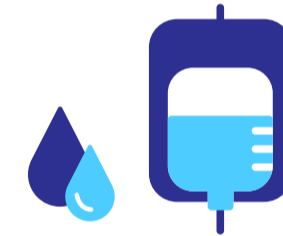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혈액학회 16일
‘COVID-19, 5W1H’ Sympo...**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회장 구분경)는 10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COVID-19, 5W1H, 우리(연자 인제대 상계백병원 박상미)'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혈액학회는 이어 11월 20일(토) 오후 1시30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6월 5일 시행된 2021년 제 5회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시험에는 총 17명 응시하여 미응시 2명을 제외한 15명이 합격했다.



광주광역시회

SNS채널 “kamt_gwangju” 오픈

광주광역시회(회장 서정훈)는 회원들에게 새소식을 비롯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식 SNS 홍보채널을 개통했다.

접속은 인스타그램 SNS채널 "kamt_gwangju"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 검색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광주시회"를 치고 들어가면 된다.

대구광역시회

제1차 웹세미나 보수교육 470여명 참여

대구광역시회(회장 유황림)는 9월 11일 자체 제작, 송출한 2021년 제1차 웹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웹세미나 보수교육에는 모두 470여명의 회원이 사전등록하는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대구시회는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과 의료 환경 급변 속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보탬이 되게 한다는 목표로 아래 준비했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12.4학회 김현욱·조덕
교수 특강**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회장 이은경)는 오는 12월 4일(토) 오후 1시 30분 온라인 학술대회를 연다.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지는 학회에선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김현욱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조덕 교수의 특강과 4개 구연(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김대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동원, 서울대학교병원 강지상, 서울아산병원 발표)이 이어진다.



밤낮없이 헌신해주시는 의료진에
벡크만쿨터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벡크만쿨터의 최신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규제과학 (Regulatory Affairs) 전문가



임 용 동의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1.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과학(RA) 전문가 전망

바이오헬스산업 의료기기 시장은 신종질병의 잦은 출현, 감염질환 유행, 인구고령화로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치료를 위한 진단과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현장진단(POCT) 사업 역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융합된 형태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선진국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변화에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임상병리사가 2016년에서 2024년까지 가장 수요가 많은 생명공학 분야 직업 순위 1위로 보고 되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취업시장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ioSpace.com)



출처: www.biospace.com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업 및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1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에 대한 직업정보와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전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임상병리사 수요는 자동화 시스템 및 검사기기 확대 등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검사가 진행되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에 대한 정부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임상병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바이오기업 등에서 개발하는 제품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의약품 규제과학(RA, Regulatory Affairs)' 전문가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RA 전문가 직무 및 시험제도

RA 전문가는 국가별로 정해진 규정 및 제도를 분석·취합해 제품의 허가·변경을 이끌어내는 기술문서 작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 및 데이터를 토대로 허가당국과 논의하는 역할을 직접 맡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인력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 RA 전문가를 2018년 10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해 2021년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자격시험이 2회(7월, 11월) 서울, 대전, 대구 3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응시자격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인허가 시판 전(19문항) ▲사후관리(19문항) ▲품질관리(19문항) ▲임상(19문항) ▲해외인허가(19문항) 총 5개 과목으로 과목당 객관식 18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총 95문항)이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임상병리(학)과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시험 관련학과로 지정되어 있어 학제에 따라 응시자격을 확인해 응시할 수 있다.

3.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기관 현황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부터 의약품 전주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법적·과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민간에 위탁 시행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RA 전문가 1:2세대가 주로 한국에프디씨(KFDC) 법제학회와 RA전문연구회 등을 통해 활동해 왔다.

2019년부터 RA 전문가 교육기관이 지정·운영됐으며, 2021년 8월 2일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의료기기 규제과학(RA)전문가 자격 관리·운영 지침」 제 10조의 지침에 의거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5곳을 ▲대구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광의료과학고등학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추가 지정해 총 25곳(학교 17곳, 기관 8곳)이 운영 중이다.

4.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R&D) 주관연구기관 현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을 재·개정하고(2021년 3월 30일) 주관연구 기관 및 대학을 공모해 ▲규제과학 연구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 안전성평가 분야 - 아주대 ▲의약품 유효성평가 분야 - 경희대(서울), 성균관대 ▲식품 기능성평가 분야 - 고려대(세종) ▲식품 안전성평가 분야 - 중앙대(안성)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어 이르면 2021년 가을학기부터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해 바이오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5. 제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의한 규제과학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제품들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접근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 분야로 직무세분화가 예상된다. 2021년도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자 모집 공고에 참여 경험이 있는 성균관대, 동국대와 신규참여 서울대를 우선 주관사업자 대학으로 선정하고 최종 1개 대학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임상병리사는 진단의료기기의 운영·관리 및 기기 평가 능력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해석 능력 등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 보건의료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빠른 인식과 준비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향후 의료기기 RA 전문가의 역할이 커질 취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기획연재

세계 각국의 임상병리사 명칭 현황 (임상검사인력의 유형)-[2회]



구본경 임상혈액검사학회장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배경

▶ 2021년 병리협회 9월호부터 순차적으로 IJBLS에 투고 심사중인 "Professional Titles of Laboratory Scientist, Analyst and Technologist and the Categories for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논문"을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임상병리사연맹(IFBLS) 회원국의 나라별 임상병리사 명칭,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임상병리사 직업 상황 이동 방안 등을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 명칭 현황 등은 회원들이 직업 소개나 국제학술대회, 해외여행, 유학, 취업, 이민, 인적 교류 등에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 국가 수

국가의 개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으로는 249개의 국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준으로는 206개의 국가, 국제연합(UN) 기준으로는 195개 국가(193개 국+팔레스타인+바티칸시티)이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는 국제연합(UN)의 국가 수를 사용하고 있다.

□ Land 표기의 원칙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지명 표기에 원칙에 의하면 Land 형의 지명은 복합어임을 무시하고 표기하되, 음가에 관계없이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있는 지명은 '랜드'로, 독일어, 네덜란드 어 등의 지명은 '란트'로, 그 밖의 것은 '란드'로 적는다.

(예) 메릴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예) 도이칠란트, 유블란트, 노르트홀란드

(예)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

□ 연구개발인력의 정의

1) 연구원 : 학사 이상 학위소유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대졸 이상 학력 수준)

2) 연구보조원 : 연구원의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고졸 이상 학력 수준)

□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1)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학위과정 이수 또는 학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과학기술활동에 종사하는 자(고졸 이상 학력 수준)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고등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고등교육을 수료하지는 못했으나, 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자(전문대졸 이상 학력 수준)

3)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표준직업분류 :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로 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자(전문대졸 이상 학력 수준)

4) 미국 과학공학의학하림원(NASEM) : 이학(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학 및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과학자와 대학교수(대졸 이상 학력 수준)

5)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인력" : 이학(자연과학), 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된 학제 간 융합분야를 전공한 자(전문대졸 이상 학력 수준)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또는 이에 동등한 자격 이상을 보유한 자

□ 임상검사인력의 유형 (알송달송,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 용어)

1) Professional 전문가

Health Professional 보건전문가	-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 보건준전문가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Allied Health Professional 연합보건전문가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사, 약사 등 제외)
Medical Laboratory Professional 임상검사전문가	- 임상검사인력(의사, 임상병리사)

2) Specialist 전문가

Medical Specialist	- 전문의 (Specialist Physician = Specialist Doctor) - 의료전문가
Physician in Laboratory Medicine	- 검사의학 전문의 (= Clinical Pathologist)
Specialist of Laboratory Medicine	- 검사의학 전문의 표현 가능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음
Specialist in Laboratory Medicine	- 유럽 검사의학 전문가 (의사, 약사, 임상생화학자)
Laboratory Medicine Physician	- 거의 사용하지 않음
Laboratory Medicine Specialist	- 거의 사용하지 않음
Medical Laboratory Specialist	- 미국 임상검사전문가(임상병리사) - 미국 검사의학 전문의는 사용하지 않음**
Army Medical Laboratory Specialist	- 미국 육군 의무병 임상검사 주특기 사병 (임상병리사)

[출처: 구글] US Army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68K (Army Medical Laboratory Specialist)

3) Laboratory Director 검사실 책임자

- 미국/유럽 의사
- 미국 박사급 과학자(화학, 물리학, 생물학, 임상검사과학 학사 후 전문 과정 이수)
- 유럽 약사(약학 학사 후 전문 과정 이수)
- 유럽 박사급 과학자
(*임상생화학자* - 생화학, 생물학, 화학, 분자생물학, 임상검사과학 학사 후 전문 과정 이수)
- 직위 : Director / Manager / Supervisor

[출처: 구글] CLIA'88 또는 CAP Personnel requirement by testing complexity
[출처: 논문] Oosterhuis WP, et al. Laboratory Medicine in the European Union. Clin Chem Lab Med. 2015;53(11):5-14.
[출처: 논문] Kovacs GL, et al. Graduate and Postgraduate State University Education of Laboratory Specialists in Hungary: Medical Doctors, Pharmacists and Laboratory Analysts. Biochimica Medica. 2011;22(2):22-29.

4) Scientist 과학자

Physician Scientist	- 의사과학자
Medical Scientist	- 의과학자
Biomedical Scientist	- 의생명과학자 - 영국에서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임상병리사
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	- 의생명과학자 -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Biomedical Analyst 등이 "자칭(임의직)" 임상병리사

5) Laboratory Techs 검사기사

Medical Technician	- 의료기사
Medical Technologist	- 미국 등에서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 미국 등에서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 캐나다 등에서 임상병리사

6) Laboratory Analyst 검사분석사

Bioanalyst*	- 미국 박사급 임상검사 전문가(임상병리사 아님)
Bioanalyst	-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임상병리사
Biomedical Analyst	- 오스트리아, 스웨덴 임상병리사
Biomedical Analyst [영어, 독일, 불어 통용] (= Biomedical Analysis Technician)	- 스위스 임상병리사
Clinical Analyst	- 브라질 임상검사 약사
Clinical Analysis Technician	- 포르투갈 임상병리사
Medical Analyst	- 네덜란드 임상병리사
Medical Analytics Technician	- 폴란드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Analyst	- 헝가리 임상병리사(생화학, 생물학, 화학, 분자생물학, 임상검사과학 전공 학사)

신간안내 ... 수혈필드메뉴얼

조덕교수

20여 년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수혈의학 전문가로서 의료 현장에서 안전한 수혈을 위해 진력(盡力)해 오고 있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덕교수(사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수혈 필드 매뉴얼'을 펴냈다. 이 책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전정터와 닮은 의료현장에서 수혈을 실행하고, 연구실에서 수혈의학 분야의 연구를 하는 이들을 위해 쓰인 '필드 매뉴얼(field manual)'이다. 원래 필드 매뉴얼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인데, 이 책은 필드 매뉴얼의 의미를 살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위한 현장의 가이드북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조덕교수는 의료현장에서 받았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간단 명료한 해결책을 많은 예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많은 예제를 대부분 챕터(chapter)에 표를 사용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병원의 수혈 현장에서 고민스러운 상황을 접할 때가 많다. 초음급 상황에서 환자의 혈액형도 모르고, 검사할 시간도 없을 때 어떻게 수혈해야 하는지? Rh(D) 음성 환자에게 수혈할 음성 혈액이 없을 때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ABO/Rh(D) 이외의 기타 혈액형에 대한 항체가 생긴 환자에게 어떻게 수혈해야 하는지? 등이다.

또한, 저자가 20년 간 한국인의 특이한 혈액형 유전자 연구를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술했다. 널리 알려진 시스 AB 형은 매우 드문 혈액형이지만, 전 세계 인종 중 한국인에서 가장 흔하고, A2B3라는 특이한 표현형을 보이고, 빈번하게 ABO 불일치를 유발해 혈액은행 검사실을 불편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시스 AB형 뿐 아니라 '아시아형 DEL형' 이야기도 또한 흥미롭다. 서구인에는 거의 없지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하다. 문제된 혈청학적 검사로는 Rh(D) 음성으로 분류된 사람 중 15~20%는 실제로는 Rh(D) 음성이 아니다. RHD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아시아형 DEL 형(1227 G)'은 RhD 음성으로 표시되어 Rh(D) 음성 환자에서 수혈하여 여러 사례에서 항-D가 발현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병원에서 접하는 특이한 혈액형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한 수혈 가이드를 제시하고, 특이한 혈액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가족간 오해도 해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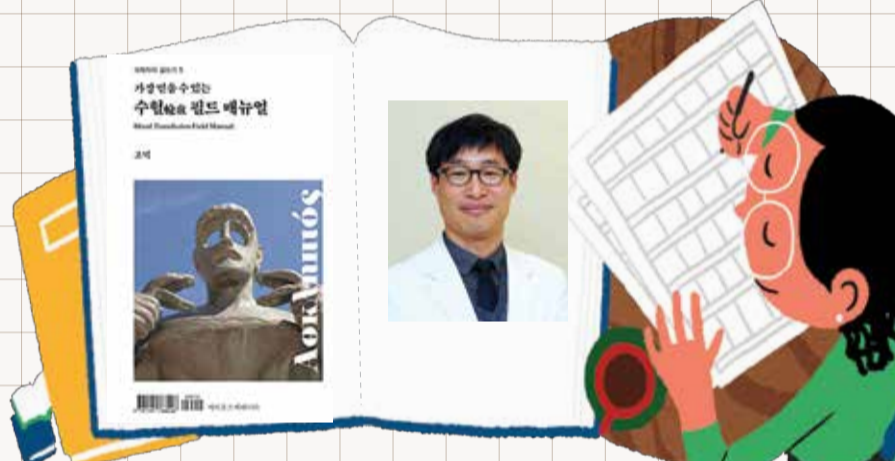
준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혈필드 매뉴얼은 이외에도 수혈이상반응, 백혈구제거혈액제제, 방사선조사혈액제제, 유니버설 블러드(universal blood),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T 세포 치료를 위한 림프구성분채집술 등을 다루고 있어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과학적으로 다소 흥미로운 전신 키메라(chimera) 즉, 두 사람의 DNA 세트를 한 사람이 갖는 키메라에 관한 연구는 분야에 상관없이 일반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것이다.

책은 △혈액형과 수혈 일반 △시스AB △Rh(D) △기타 희귀혈액형 △비예기항체 △수혈 필드 매뉴얼 △성분 채집술 등 7개 부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저자는 실제 수혈과 관련 일을 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임상병리사들과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부딪히는 궁금증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와 세부내용을 전개해 나갔다.

〈저자〉 현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및 수혈관리실장, '대한수혈학회지' 편집위원장 역임. 전남대의대에서 시스AB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에서 연수를 했으며, 최근엔 특이 혈액형 유전자 및 NK세포 면역항암제 연구를 하고 있다.

바이오스펙테이터 펴냄 140 · 215mm 218쪽





코젠바이오텍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델타 플러스 진단키트

-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주 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10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극동대 임상병리학과 권혁우 교수, 한국응용생명화학회 JABC 우수논문상 수상



제16회 JABC 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권혁우 교수가 수상하고 있다. (제공=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총장 류기일) 임상병리학과 권혁우 교수가 지난달 23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16회 JABC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1960년에 창간된 학술지인 JABC(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의 우수논문상은 JABC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학술 발전에 기여가 큰 논문에 대해 시상한다.

권혁우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연구지원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봉나무 및 구지봉나무 유래 성분을 이용한 항혈소판 효과를 연구해 왔으며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출원했다.

JABC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구지봉나무 유래성분인 유크레스타플라비논B의 혈전형성 억제효과를 규명하고 인체 혈소판 조절 기작을 명확히 해 향후 혈전증 치료 선도물질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우수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 교수는 다양한 천연물 유래 성분을 이용한 항혈소판 및 항혈전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지식과 관련 실험기법들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가르치고 임상병리사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대 임상병리과, 의료기술직 공무원시험 합격자 배출 '10.2 대 1' 경쟁률 뚫어, 2년 연속 전국 수석 배출

신성대학교(총장 김병욱) 임상병리과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기술직 임용시험'에서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2019년 2월 신성대 임상병리과를 졸업한 우연두 이신영씨는 이번 의료기술직 임상병리 직류의 10.2대 1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신성대 임상병리과는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도 경기도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우씨는 "학과에서 배웠던 전공과목들이 시험과목과 같은 내용이 많아 도움이 많이 됐다"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임상병리, 물리치료, 치위생, 작업치료, 임상심리, 보건 의료정보관리, 방사선, 치기공사 등의 보건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영역 공무원으로 의료기사 자격증을 필수 소지해야 한다.

한편 신성대 임상병리과는 2019년과 2020년 치러진 47·48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전국 수석을 배출했으며, 2014~17·2019년 지원자 전원 합격의 결과를 보이는 등 전문적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명문학과로 거듭나고 있다.



2019년 신성대 임상병리과를 졸업해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기술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우연두(왼쪽) 이신영씨. 사진=신성대 제공

"우리 예비 의료인, 서로 검사했어요" 경남정보대 임상병리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습


대학의 예비 임상병리 전문인력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습에 나섰다. 경남정보대학교 임상병리과는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2일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사전 예방차원에서 진단검사 실습을 했다.

이 실습은 실제 검사와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2학년생 100여명 전원이 참여해 역할을 바꿔가며 검사를 실행했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단검사를 실천처럼 경험하는 산교육 현상이었다.

이들은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를 앞둔 예비 의료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졸업 후 방역 보건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진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진단검사 실습에 세빛메디칼과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신속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했고 임상병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PCR 진단기기를 이용해 실시했다.



경남정보대학교 임상병리과 학생들이 2학기 개강을 맞아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습을 하고 있다.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사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임상병리사 감사사 작지 143명, 직원 감사사 작지 143명

- 1) 접수기한 : 2021년 10월 28일(화) 18:00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64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경찰, 검시 조사관 2배로 늘린다

● **이혜진 회원:** 국과수에 임상병리사를 검사조사관으로 채용하는 좋은 기회가 생겨 임상병리사의 취업 폭과 분야가 더 다양해질 수 있게 된거 같습니다. 기존 경찰 내 검사조사관 인원수 보다 배 이상의 인원을 채용하여 임상병리사들의 취업 문폭도 더 넓어진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망원인과 관련된 논란이 우리 임상병리사들의 노력과 힘으로 조기에 불식할수 있게 되면서 임상병리사의 위상도 같이 높아질 것 같아 더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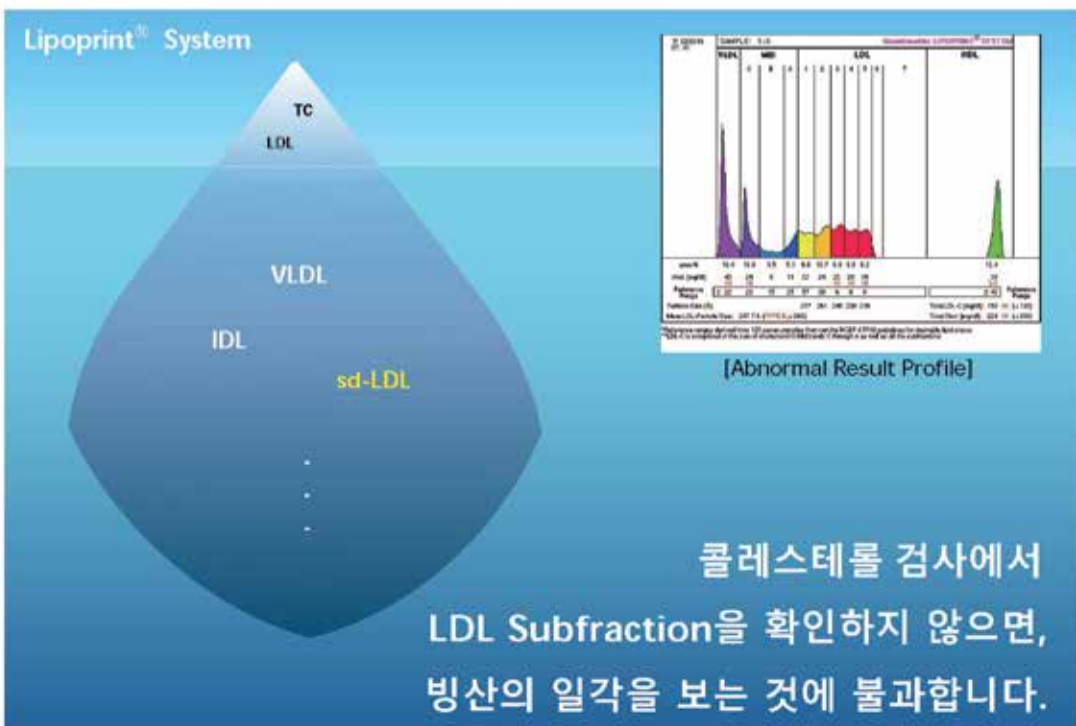
구연발표&포스터 발표 연중 수시 모집 안내

- 본 학회는 종합/분과 학술대회 기간 외에도 임상병리사의 끊임없는 학술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구연 발표와 포스터 자료를 연중 수시로 모집함을 안내합니다.
- 모집된 발표 자료는 저자가 원하는 시기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연중 수시 모집
형식 협회홈페이지 → 임상혈액검사학회 → 공지사항 → 첨부파일 참조
문의 및 접수 학술부학회장 심문정 mjshim@ansan.ac.kr / 학술간사 이혜린 lhr3738@korea.ac.kr

회원동정

- 동정** (광주시회 소속)
△서요한 회원(광주보훈병원) 코펜하겐서 2021 IFBLS에서 포스터 구연
- 학술상** (제 33차 대한세포병리학회 가을학술대회)
△하화정 회원(원자력병원) 우수학술상 수상
△신명순 회원(원자력병원) 최우수포스터상 수상
- 인사** (전북도회 소속)
△백화정 부회장, 원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유용희 회원, 군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이상 9월 1일자)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LDL Subfraction을 확인하지 않으면, 병산의 일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해결책
Lipoprint® LDL Subfraction 검사
Lipoprint®는 지단백질의 모든 하위 분획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결과 항목]

- VLDL
- IDL 1~3
- Large LDL : LDL 1, 2
- Small dense LDL : LDL 3~7
- LDL Particle Size
- Total LDL Cholesterol
- Total Cholesterol

봄메디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현대저식산업센터A동 3층
Tel. 02-477-5916 Fax. 02-477-5917

Patients are counting on your results

With high performing assays, the Atellica Solution will help you deliver them



Powered by Atellica® Solution

The Atellica Solution offers a broad, growing menu of chemistry and immunoassays—from a true High-Sensitivity Troponin I assay to a robust thyroid menu.

See our comprehensive menu or ask your sales representative for more information.

With revolutionary sample management, the Atellica Solution provides the diagnostics patients need with the turnaround time clinicians require.

SIEMENS Healthineers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대구경북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구축



❖ ONE DAY 신속한 결과보고



❖ K-방역 최일선



❖ AI(인공지능) 등 최신키술 도입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 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 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 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리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